

“이젠 사법적 책임 물어야” ‘신속 파면’ 한목소리 촉구

●광주·전남 각계 “탄핵 환영”

강기정 시장·김영록 지사 “국민의 승리”
시·도교육감 “학교 교육 흔들림 없어야”
오월단체·구청장·지방의회도 “법적 단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하자 광주·전남 각계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히고 “이제는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 “과거의 광주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켰다”며 “오늘은 국민이 승리한 날”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국회를 군함발로 짓밟고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려 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다”며 “1980년 5월 광주가 흘린 피와 2016년 평화로운 촛불시위 덕분에 2024년의 대한민국은 알록달록 응원봉을 들고 흥겹게 싸울 수 있었다.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대한민국의 과거는 현재를 돕고, 대한민국의 현재는 다시 미래를 도울 것”이라며 “역사와 국민의 힘을 믿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자”고 의지를 다졌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발표한 도민 담화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

추안 가결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도하게 파괴하려 한 반국가·반헌법·반민주 폭거 행위를 멈춰 세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살을 에는 추위에도 쉽없이 탄핵을 외친 국민들의 승리”라며 이 같이 평가했다.

이어 김 지사는 “헌법재판소 심판 등 앞으로 남은 절차 역시, 엄중한 시대적 요구와 준엄한 국민의 명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될 것이라 믿는다”고 신속한 탄핵 심판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이제 우리는 가까스로 민주주의와 국가 경제를 되살릴 첫 단추를 끼웠다”며 “모두가 힘을 모아 하루속히 12월3일 이전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도 탄핵 가결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정선 교육감은 “5·18의 아픔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광주시민과 온 국민이 함께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K-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더 공고해지고 견고해지기 위해 민주시민



15일 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 회원들이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특전사 장병들이 반국가 내란 세력에게 이용되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교육을 비롯한 학교 현장 교육이 흔들림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육감은 “다시는 이 땅에서 5·18의 아픔과 12·3 비상계엄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초를 탄탄히 하겠다”며 “시국이 안정화되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때까지 광주시민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중 도교육감도 “국회의 탄핵 결정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뜨겁게 환영한다”며 “국민과 국회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극히 평화롭게 진행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육감은 또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대화하고 집회 현장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봤다”며 “앞으로의 절차도 헌법기관들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오롯이 반영되는 길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주지역 5개 구청장도 개인 SNS 등을 통해 함께 싸운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하

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내란 세력 척결과 현재의 탄핵 인용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민주주의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 번 보여줬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의 시작이 될 것”, “이번에야말로 사람이 아닌 사회를 바꿀 기회”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광주시의원들은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하면서도 “이제 탄핵을 넘어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해 처벌해

야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의원들은 “윤석열을 반드시 엄정한 심판을 받게 하고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해야 한다”며 “그래아만 훼손된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역사와 법 앞에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는 시민의 명령이 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진보당·정의당 소속 전남도의원들도 환영 성명서를 통해 “민주주의가 승리한 위대한 날”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역사의 수저로 남은 불법 비상계엄 사태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대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조속히 인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5·18 3단체 (유족회·부상자회·공모자회)와 5·18 기념재단은 공동 입장문을 내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역사적인 이정표가 세워졌다”고 환영했다.

오월단체들은 “부패와 권력 남용으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윤석열과 그 부부, 잔당들에게 법적 단죄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입장문을 발표해 “지역 경제계는 이번 정치적 혼란으로 논의가 중단된 광주 공공화 이전 문제 등 지역경제 현안들이 정책과 예산의 우선순위에선 벗어나지 않도록 대응력을 높여겠다”고 밝혔다.

/김재정·유재민·김다아·변은진·안재영 기자

‘체포조 운영’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

현역 군인 처음...한동훈·이재명·우원식 등 체포 지시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14일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 임무 중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등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3시 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는데 약 50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화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관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

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내 병거 등에 구금하고 선관위 등의 서버를 영장 없이 확보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이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군사법원도 여 사령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특히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육사 48기인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총암고 출신으로 12·3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힌다. /연합뉴스

행안부·시도 부단체장 회의...“공직사회 중심 잡아야”

행안장관 대행 “축제·송년모임 예정대로 추진 내수 진작”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5일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 장관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안제나 그랬던 것처럼 충실하게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겨울철 대설·한파·화재와 같은 재난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연말연시 인파 밀집 상황에 대비한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등 빈틈없는 재난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

이다. 또 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소비·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 내수진작과 물가 관리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지자체 주관 축제·행사를 정상 추진하고, 각종 송년 모임도 예정대로 추진하는 등 지역 내수진작을 위한 조치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고 장관대행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공직 사회가 중심을 잡고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면서 “지자체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부단체장님들께서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란

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군인 1천500여명 동원”

경찰이 이번 12·3 계엄 사태 때 군인 1천500여명이 투입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1천500여명이 동원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박인수 전 계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43명의 현역 군인들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제품



고블 G-07 프리미엄
럭셔리 프리미엄 상급자용



피닉스 K-07
럭셔리 중상급자용



피닉스 G-01
초보 입문자용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장인의 기술

오랜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ASTRO

최고의 명품 퍼크골프채 아스트로

A9 Nice Shot
상급자를 위한 정교한 방향성, 비거리, 타구감 향상



소비가자 가격 ₩ 1,180,000

헤드	단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강55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A100 Nice
부드러운 타구감, 방향성, 비거리 최적화 / 골프엘리트 완전해결



소비가자 가격 ₩ 1,380,000

헤드	단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신공법으로 설계 초고탄성 카본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샤프트 50g

A5
최적의 밸런스 부드러운 스윙과 안정적 타구감



소비가자 가격 ₩ 800,000

헤드	단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중량90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